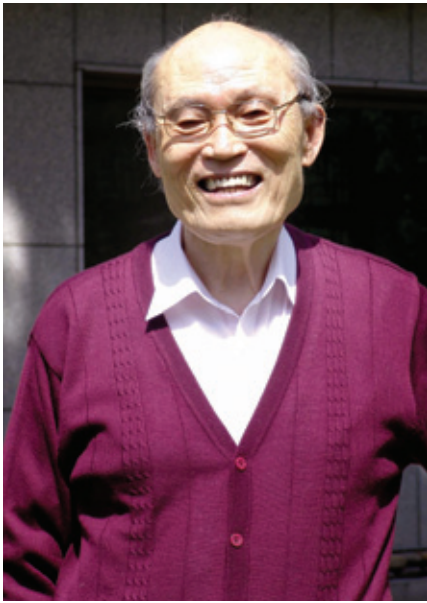


88세 노익장 40년 수행 일기



부처님을 만남
한갑진 지음
한진출판사 펴냄
1만원



미수(米壽)의 나이에 날마다 부처님 만나기를 쉬지 않는 이가 있다. 영화사 한진 흥업의 한갑진 회장(88).

한 회장은 한국영화 황금기인 1960년대부터 총무로의 중심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1979년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영화인이다. 영화인 이전에는 국제신문 정치부장 출신의 기자였다. 촌철살인하는 글로 세상을 바로 잡던 기자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활동사진으로 담아내 180편의 작품을 만들어 내던 영화일도 그의 갈증을 풀어낼 수 없었다. 신심 깊기로 소문난 불자 한갑진 회장이 최근 저서 <부처님을 만남>을 펴냈다.

하면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 사유를 통해 불교를 만나 부처님 생애를 연구하면서 그 가르침을 책으로까지 펴낸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한 회장은 자신의 40년 수행일기와 함께 부처님의 생애와 교리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위한 길 안내도 담았다.

한갑진 회장은 해외여행 중에도 빠지지 않고 예불을 할 만큼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매일 수행·기도를 통해 부처님을 만나기를 거르지 않으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가 생겨납니다. 절제된 생활방식은 자신부터 변화시켜 나이가 들어도 주위로부터 얼굴이 맑아졌다는 말을 듣게 합니다.”

한진출판사는 한 회장이 직접 부처님 법음을 글로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출판사이다. 한갑진 회장은 한진출판사를 통해 <알기 쉬운 불교> <인도의 불교> <부처님의 생애> <새 천년을 헤쳐 갈 불교>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알기 쉬운 불경집> <알기 쉬운 법요집> <불교성전> <석존의 직관> 등 편역서까지 포함하면 한 회장이 펴낸 불교도서는 20여 권에 이른다.

<부처님을 만남>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내 나이 88세다. 이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처럼 흔하지 않은 일을 한 회장이 하는 것은 부처님을 향한 열력 때문이다.

저자는 “불보살을 향한 신심을 통해 욕망을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젊은 사람 못지 않은 맑은 기억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48세에 부친과 사별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심 깊은 불자로만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저자는 스리랑카 최고국민훈장과 스리랑카 주한 명예총영사로도 활동하며 불교국가와 우리나라의 민간외교에 기여한 인물이다.

저자는 최근 <대반열반경>을 번역하고 있다. 한갑진 불자의 신심이 녹아든 <대반열반경>은 2013년 만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현대 산업문명의 죄악을 밝히다



굿 워크
E.F. 슈마허 지음
느린걸음 펴냄
1만5000원

마히는 평생에 걸쳐 기존 경제학과 기술, 그리고 이를 떠받쳐온 가치체제에 대한 근원적 도전을 던지며, 우리를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끄는 길을 탐색해 왔다.

책은 거대한 현대 산업사회의 악을 드러내는 문명비판서이다. 슈마허는 현대 산업문명이 저지른 4대 죄악을 밝혀냈다. 특히 ‘인간의 노동을 가장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만들며, 인간의 총체적인 본성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사용해 인간의 삶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단 한 문장으로 인류의 ‘생각의 대전환’을 이뤘던 슈마허의 최후의 강연록이다. 역사상 가장 창조적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슈

“그대들 여기 주목하라. 부처님 말씀에”



만발로 오신 부처님
효림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2000원

효림 스님의 현대판 '불소행찬' 부처님 일대기 285편의 시로

“저기 빈 들판 길을 홀로 걸어오신 분이 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만발로/ (중략)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들판 길을 만발로 걸어와/ 세상을 바꾸셨다/ 오직 사람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셨다/ 바로 그대들 여기 주목하라/ 스스로 자기 삶에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부처님 당시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운율에 맞춰 노래로 합창했다. 이 노래들은 훗날 불교경전의 토대가 됐으며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불소행찬(佛所行讚)>의 근간이 됐다.

<불소행찬>은 고대 인도문학의 고전으로 서시로 이뤄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 경원사 주지인 효림 스님은 최근 현대판 <불소행찬>인 <만발로 오신 부처님>

을 출간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찬탄과 감동으로 엮힌 시로 승화했다.

효림 스님은 “43년 간 수행자로 살다보니 자연스레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게으르고 부족한 것 투성이였다. 그나마 내가 내게 칭찬할 것이 있다면, 아직도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한마디에 이끌려 출가를 결심했다. 때문에 부처님 전기에 관해 꼭 한번은 시로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효림 스님은 백담사 회주 오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를 공부한 후 2002년 불교잡지 <유심>에 작품을 게재해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흔들리는 나무> <꽃향기에 취해> <그늘도 꽃그늘> 등의 다수의 저서들을 통해 전대인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한 수행자이자 시인이다.

스님은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 또한 부처님에 대한 나의 주관적 주장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부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성장사 가족사 출가 고행 열반 가르침 제자들 열반까지 시대적 상황과 공간의 움직임에 따라 부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님은 “부처님에 관련된 책은 이미 시중에 많이 널려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부

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려고만 했다”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효림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를 담담하게 서술하면서도 매순간 주인공이었던 당당한 부처님의 모습을 심도 있게 그려냈다. 또 각 시마다 각주를 통해 2500년 전 일어났던 일들을 현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적절한 안내도 덧붙였다.

스님은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면서 항상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라며 “부처님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격변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계급과 인종, 성을 넘어 설법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의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의 지배력은 약화되는 반면, 무사계급인 국왕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그러다 보니 국가 간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부처님의 모국인 가비라국도 쪼살라국에 의해 멸망 당했고, 쪼살라국은 마가다국에게 멸망 당했다. 이처럼 세상은 격변과 혼란으로 어지러웠다.

효림 스님은 책에서 “불가촉천민, 하인, 기생, 살인마 등 모두 부처님이 제시한 깨



달음의 길에 차별이란 없다”라고 설명하며 부처님의 인간 평등사상을 강조했다.

특히 효림 스님은 책에서 “여성출가에 대해 ‘팔경법’을 운운하는 것은 부처님의 절대평등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팔경법을 따지는 비구 스님들을 질타하고 비구니 스님들에게 더욱더 당당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책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좇는 한 수행자의 감동어린 진솔함이 285편의 시를 통해 담겨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초보불자들이 읽어야 할 불교입문서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 기본 교재 펴냄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펴냄
7000원

하지만 <불교입문> 그동안 초심자들이 읽기에 분량이 많고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 포교원은 이번 ‘2012년 불교입문 개정판’ 재발간을 통해 기존의 불교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간추려 불교 전반에 이해를 도왔다.

포교원은 이번 개정판에서 불자들의 실행생활을 강조하고, 불교의 핵심 사항을 전달하고자 했다.

또 학술적인 내용보다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사에 대한 이해와 조계종사를 소개해 신도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

책은 사찰에서의 불자예절과 자세,

사찰의 구조,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신행생활 등 신도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을 담고 있다.

또한 책은 조계종 신도들을 위한 신도 기본교육의 교재로 사용돼 의미가 깊다.

책에는 불자들 ‘왜 절에서 목탁을 치고 예불을 할까?’ ‘사찰에서는 왜 아침저녁마다 북과 종을 칠까?’ ‘사찰의 전각마다 모셔진 불상은 똑같이 보이는데 왜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 ‘기도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등 누구나 불교문화에 대해 갖는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불교에 대한 깊이와 폭을 넓히고,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1/1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3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쌤앤파커스
5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반	도반	불광출판사
8	공경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다	이수덕	운주사
9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틱낫한	더난출판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대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궁극의 명상음반

나왕 케축 티벳 명상음악
그레미상 지명자 나왕 케축이 티벳 불교와 명상음악 여정 20년을 정리하며 헌정하는 티벳 명상음악의 역작!
나왕의 진언과 티벳 대나무 피리, 명상주발과 종, 풍경소리 느낌의 드릴부, 가야금 소리와 유사한 우드, 마림바, 첼로 등의 선율과 음색의 미묘한 하모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명반!
1CD/Contents Korea/16,000원

신성한 붓다 찬트
불교의 만트라를 현대적으로 창작한 뉴에이지 찬트! 명상음악 궁극의 극치를 보여주는 걸작!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운 저음 남성 코러스의 하모니 울림이 우리 내면에 이완과 심신의 치유를 가져다 준다.
1CD/Contents Korea/15,000원

나왕 케축 티벳 명상음악
그레미상 지명자 나왕 케축이 티벳 불교와 명상음악 여정 20년을 정리하며 헌정하는 티벳 명상음악의 역작!
나왕의 진언과 티벳 대나무 피리, 명상주발과 종, 풍경소리 느낌의 드릴부, 가야금 소리와 유사한 우드, 마림바, 첼로 등의 선율과 음색의 미묘한 하모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명반!
1CD/Contents Korea/16,000원

크리스탈 울림 주발
크리스탈 울림 주발과 자연의 소리와 조화로운 앰비언트 사운드와의 환상적인 만남!
신비한 파동과 공명이 경이롭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균형을 조화롭게 하고 명상적인 상태로 유도하여 내면의 의식을 각성시킨다.
1CD/Contents Korea/15,000원

서적·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